

일제 수탈의 역사 조명

문화재청 완주문화재단연구소, '정읍 화호리마을' 학술 연구 착수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있는 '정읍 화호리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가 진행된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단연구소는 이달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과 관련한 건축과 인문 환경 학술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전북도 정읍시 화호리마을을 첫 대상지역으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읍 화호리 일대는 과거부터 마을 주변에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어 먹을 것이 풍부했으며 정읍, 김제, 부안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

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의 표적이 돼 여러 일본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대규모 농장을 세웠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쌀이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유출됐다.

현재 화호리에는 일제강점기에 이 일대에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던 일본인 농장주 구마모토 리헤이와 다우에 타로, 니시무라 타모츠,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로 불리는 샘턴 이영춘 박사 등과 관련된 가옥과 창고, 사무소, 병

원 등의 건축물이 남아있다. 하지만 보존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어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국립완주문화재단연구소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라북도, 정읍시와 협력해 정읍 화호리 근대역사공간에 대해 건축, 조경, 농업, 인문, 민속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합학술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내년에 결과물을 연구보고서로 공개해 전북지역 농촌수탈사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정읍 화호리마을의 다우에 가옥(사진 왼쪽)과 옛 화호자혜진료소.



'고인돌이 모티브'

고창문화관광재단 CI 선정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재단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CI(기업 이미지, Corporate Identity)를 선정했다. CI는 한 달간의 전국공모를 거쳐, 지난 3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고창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선정된 작품은 고창고인돌의 모습을 모티브로 활용해 고창의 다양한 자원(역사, 문화, 자연)을 표현했다. 선과 선이 만나고, 면의 겹침은 새로움과의 만남, 인연, 어울림, 이어짐을 상징한다. 사각형은 다양한 자원(역사, 문화, 자연)의 수도인 고택을 의미한다.

선정된 CI는 표절 이의신청 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으로 홈페이지, 기안문과 명함, 봉투 등 각종 인쇄물에 CI를 사용해 재단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대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7년 연속 선정

코로나19 상황 안정 이후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맞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박물관(관장 김건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7일 전주대에 따르면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과 진로개발을 위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룸 디자인 인장(도장), 컬러풀 원더풀(부채만들기), 소원을 말해봐(부채만들기), 여러 모양의 매듭(매듭만들기), 손으로 그리는 마음(예코백) 등 대상별 맞춤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2020년 박물관·미술관 주간(8월 14일부터 23일까지)에는 2020년 국제박물관협회(ICOM) 선정 주제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박물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대박물관은 학생들이 박물관에 직접 방문해 수업을 받는 것 외에도 도시 및 농촌 단위, 문화소의 지역과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며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4·3사건, 4·19혁명, 5·18운동 등

민주화운동사업회, 시리즈로 출간

"과거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지금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주 4·3 사건,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네 가지 역사적 사건이 만화로 되살아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제주 4.3사건 72주년을 맞은 지난 3일 도서출판 창비와 함께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를 펴냈다.

창비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7일 오전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 출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남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시리즈 참여 작가들, 창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리즈는 작업에 참여한 작가들의 이름만으로도 화제가 올랐다.

제주 4.3사건은 이 사건을 만화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10년 전부터 제주에서 생활 중인 '두근두근 탐험대'의 김홍모 작가가, 4·19 혁명은 '비상'과 '이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가 다뤘다.

5·18 민주화운동은 '남동공단', '19년 뽀빠', '아티스트' 등 사회성 짙은 소재를 재밌게 그려온 마영신 작가가 그렸으며 6·10 항쟁은 당시 직접 항쟁 참가자였고 '김배불뚝이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유승하 작가가 작업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풀어냈다. 김홍모 작가는 '빗창'을 통해 제주 해녀들의 항일시위와 4·3을 연결하고 다시 해녀들의 목소리로 4·3을 기억한다.

김 작가는 "당시 제주도민이 30만명인데 3만명의 도민이 진인하게 학살 당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제주도민들이 해방정국에서 어떤 세상을 꿈꿨길래 그렇게 잔인한 탄압, 학살을 당했는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빗창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전복을 따는 도구이다. 그해 항쟁의 도구로도 쓰였다. 이 빗창이 해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빗창을 후대에 물려주면서 그 시대의 강인함, 해녀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윤태호 작가는 '사일구'에서 자신의 장인을 모티브로 한 전쟁 체험 세대 캐릭터를 만들어 그의 시선을 빌려 한국의 발전과 4·19혁명을 목격해온 이들의 소회를 나열한다.

윤 작가는 "한 시대를 관통한 분을 통해



그 시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당대 대학생이나 지식인은 각자의 사정으로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을텐데, 관찰자의 역할에서 점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로 그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밝혔다.

마영신 작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를 지적하며 40년 전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할 지에 대해 되묻는다.

유 작가는 "주변에 특정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원래 그런 성향이 있었다. 타고난 게 있다. 아무리 사실을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단서, 흠집 하나를 중점으로 보고 진실을 외면한다. 전체를 거꾸로 보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유승하 작가는 고(故) 박종철·이한열·박해정 열사 등 실존인물과 자신의 경험, 상계동 철거민 사건, 애학투련으로 불리는 건대항쟁, 신촌역 벽화사건 등을 엮어 6·10 항쟁의 전면을 담았다.

유 작가는 "만화의 절반은 1987년 이전 상황이다.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전두환 정권의 폭압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1987년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펼쳐졌다. 그러나 무대 한계상 서울을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직접 참여한 경험이었다보니 작업하는데 객관화가 잘 안 돼 많이 힘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기획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규선 이사는 "기획부터 출간까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처음 기획은 오래된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젊은 세대에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60년, 70년, 짧다고 해도 30년이 넘는 것이다.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려다 보니 만화라는 장르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임에 동의하며 시대의 기록이란 차원에서 작품을 바라봐주기를 바랐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